

WTO체제하에서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

(국무원발전연구중심 陳錫文 부주임)

1. 발표요지

가. 국내 농산물 수급관계의 변화와 농업구조조정

□ 20세기 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선 이후 정책적 자극과 과학기술진보 및 유리한 기후 등 3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, 그 결과 5년 연속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저물가 현상이 나타남.

- 식량생산량의 경우, 1995-1999년간 연평균 4억 9,720만 4천 톤으로 前 5년(1990-1994년)의 그것에 비해 11.7% 증가하였음.

□ 이는 중국의 식량소비 수준과 비교할 때 약간의 초과공급이 있음을 의미함.

- 따라서 과거의 양적 성장 중심의 농업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의 발전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.

□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은 양적 성장중심에서 생산능력을 기초로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.

- ▲ 농산물의 우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

▲ 1차 농산물에 대한 轉作과 가공산업 장려

▲ 지역별 농업의 지역 비교 우위 발휘

▲ 농촌 잉여노동력의 비농업 산업과 도시로의 이전 가속화

□ 상기 4가지 조정방향은 과학 영농과 농업분야에서의 시장시스템 도입을 유발하여 농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육성을 가능케 할 것임.

- 또한 이러한 방향은 WTO 체제하의 요구와 전체적으로 일치된다고 할 수 있음.

나. 농산물시장의 개방문제

1) 농산물 교역의 기본 구조

□ 국제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통계 기준은 상이한데, 여기서는 WTO 농업협정에서 정의한 농산물 무역통계 범위(식량, 면화, 기름, 설탕, 축산물, 원예품, 가공식품 등)와 수산물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.

- 이에 따르면 1998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약 140억 달러, 수입은 약 120억 달러로 흑자가 25억 달러 정도임.

□ 현재 중국의 농산물교역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90년대 이후 농산물교역이 중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추세에 있음.
- o 1980년의 경우 수출비중은 24.1%, 수입비중 31.1%이었으나 1998년에는 각각 7.8%와 8.5%로 하락
- 농산물교역은 외화창출의 역할도 하는바 1998년에는 중국 무역흑자의 6%를 차지하였음.
- 농산물수출에서 노동집약형 농산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(1998년은 83% 도달).
- o 주로 원예제품, 수산물 및 축산물이 빠른 증가를 보임.
- o 수출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67.5%와 23% 차지, 북미는 6%,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각각 2%와 1%를 기록
- 수입농산물중 토지집약과 노동집약형 제품의 비중 격차가 크지 않음.
- o 전자가 후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3-7% 포인트 높은데 이는 품질과 가공수준의 차이로 국외 노동집약형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함. 곡물과 기름작물, 油脂, 설탕, 천연고무 및 양모 등이 대표적인 수입농산물임.

2) WTO가입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 문제

□ 농산물 관세의 삭감

- 1997년 10월의 관세율 인하로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46.6%에서 21.2%로 하락함.
- 중국은 WTO 가입후 5년간 매년 관세를 인하, 마지막 해의 평균관세율을 17%로 인하하기로 함(이중 일부 농산물의 관세는 14%대로 인하).

□ 농산물 관세율쿼터 관리

- 곡물, 면화, 콩기름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 가입후 5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관세율쿼터를 실시함.
- o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수입량과 국내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소비량의 3% 가운데 큰 수치를 기준으로 최소할당량을 정하고 마지막 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5%로 정함.
- 1999년 11월 미국과의 협정에 의하면 곡물 수입시 최소쿼터는 1,440만 톤(그중 밀 730만 톤, 옥수수 450만 톤, 쌀 260만 톤)이고, 마지막 해의 쿼터는 2,180만 톤(그중 밀, 옥수수, 쌀은 각각 930, 720, 530만 톤)임.
- o 또한 콩기름의 최초쿼터는 172만 톤, 마지막 해는 326만 톤; 면화의 최초쿼터는 74만 톤, 마지막 해는 89만 톤임.

□ 농산물 수입쿼터의 분배

- WTO 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쿼터는 국유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며 반드시 비국유기업이 일정한 쿼터를 점해야 함.
- o 1995년 농산물 수입쿼터는 국유기업 71.7%, 중외합작·합자기업 20.3%, 외자기업 4.3%, 집체기업 1.1%, 사영기업 0.3%, 기타 기업은 2.3% 등임.
- o 그러나 1999년에는 국유기업 64.6%, 중외합작·합자기업 20.6%, 외자기업 9.8%,

집체기업 3.9%, 사영기업 0.5%, 기타 0.6%로 변화함.

□ 한편, 중·미농업협정은 WTO 관련 협정은 아닌 양자간 협정이지만,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

-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업과학기술 협력과 동식물 검역임.

3. 개방조건하에서의 농업구조 조정

□ 중국의 농업구조조정 방향은 WTO의 요구 조건과 전체적인 방향이 일치하지만 WTO체제에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토지집약형 대량 농산물, 특히 밀, 콩(기름추출용), 유채씨 등은 품질과 생산원가 등으로 수입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o 따라서 품종의 합리화를 가속화하고 품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내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.

- 국제시장 경쟁력을 갖춘 부분적 노동집약형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.

□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지역적 분포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됨.

- 지리적 이점과 경제 및 과학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연해지역은 원예, 목축, 수산 등의 분야에 경쟁력이 있음.

- 내륙 지방의 전통적인 농업구조는 품질제고를 통해 식량과 면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적 특색에 맞는 농산품 개발에 주력해야 함.

4. 중·한 농산물거래 및 무역마찰의 가능성

□ 중국 세관총서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중국의 對한국 농산물 교역총액은 7.5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농산물 국제무역 총액인 189.5억 달러의 4%를 차지하며, 중국의 대아시아 농산물무역 총액인 102.2억 달러의 7.3%를 차지함.

- 1999년 중국의 對한 농산물 교역에서 수출은 6억 8,961만 달러(수산물만 별도 4.24억 달러), 수입액은 6,092만 달러로 흑자규모는 6억 2,869만 달러이었음.

□ 전체적으로 볼 때 중·한 농산물교역, 특히 중국의 對한국 농산물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음(1998년 대비 중국의 수출은 8.3%, 수입은 1.7% 감소).

- 주요 수출산품으로는 곡물, 콩, 야채, 수산물 등임.

□ 중국과 한국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양국간 농산물무역에 호혜성과 경쟁성이 공존한다고 봄.

- 곡물(특히 옥수수)과 콩을 예로 들면, 만약 한국이 국제곡물시장에서 이들 품목을 수입하려 할 때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다면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임.

□ 양국간 무역마찰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야채와 원예류 제품임.

- 이는 중국 농촌의 토지와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이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.

- 지난해 발생했던 마늘사건으로 볼 때 중·한 양국간 농산물 교역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□ 현재 중국의 야채는 대다수가 중국의 대외무역기업을 통해 직접 한국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사를 통해 중국 생산자에게 주문되고 본국에 직접 수송됨.

- 따라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야채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중·한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부분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짐.(***)